



# ESCO, 고품격 에너지서비스에 충실할 터



유제인 회장

힘차게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해도 에너지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지난해와 같이 열심히 뛰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 구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돼 기대감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상 유래 없이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물가가 줄줄이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는 생산비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우리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환경은 신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자원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에너지원으로 활용돼온 화석연료가 종말을 서서히 고하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도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에 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생존권 차원에서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ESCO도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ESCO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ESCO들은 기술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을 통해 고품격의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협회도 에너지사용가와 ESCO가 모두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